

-(으)면

조건·가정 — ~(으)면, ~할 때면

조건을 나타냅니다. 한국어에서는 ‘만약 ~라면’과 ‘~할 때마다’를 구별하지 않고 어미 하나로 모두 나타내며, 어느 쪽 뜻인지는 문맥이 정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면	가다 → 가면
받침으로 끝남	-으면	먹다 → 먹으면
ㄹ로 끝남	ㄹ 유지, 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면
이다	-(이)면	학생이면
허락, 금지	-(으)면 되다 / 안 되다	가면 돼요 / 가면 안 돼요
바람	-(으)면 좋겠다	비가 오면 좋겠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첫째, 조건: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요. 둘째, 반복되는 계기: 봄이 되면 꽃이 피요 (봄이 오면 꽃이 핀다). 영어라면 앞의 것은 if, 뒤의 것은 when으로 나누어 말하지만,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문형입니다.

결합 방법은 일반적인 받침 규칙을 따르며, 이번에는 ㄹ이 가장 쉽게 처리됩니다. ㄹ이 그대로 남고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: 만들다 → 만들면.

곧 만나게 될 여러 일상 표현의 바탕이 됩니다: -(으)면 되다 (~해도 된다, 그거면 된다), -(으)면 안 되다 (~하면 안 된다), 그리고 -(으)면 좋겠다 (~하면 좋겠다, 바란다). 이 어미를 잘 익혀 두면 이 모든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.

■ 예문

- 1 시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.
- 2 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.
- 3 봄이 되면 꽃이 피요.
- 4 한국에 가면 뭘 하고 싶어요?
- 5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.
- 6 이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.

■ 비교

-(으)ㄹ 때

-(으)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을 나타내고, -(으)ㄹ 때는 실제로 일어나는 때를 가리킵니다.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에는 -(으)ㄹ 때만 쓸 수 있습니다.

한국에 가면 김치를 먹어요. (갈 때마다 먹는다) / 한국에 갔을 때 김치를 먹었어요. (갔던 그때 먹었다)

-아/어도

-(으)면은 조건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고, -아/어도는 조건과 상관없이 결과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.

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. (비가 오면 가지 않겠다) / 비가 와도 갈 거예요. (비가 오더라도 가겠다)

-(으)니까

-(으)니까는 앞 절을 이미 확정된 사실로 다루고, -(으)면은 열린 가능성으로 남겨 둡니다. 서로 바꾸면 이유가 가능성으로 바뀝니다.

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탑니다. (실제로 시간이 없다) / 시간이 없으면 택시를 타세요. (시간이 부족하다면)

■ 주의

✕ 제가 만들으면 드실래요?

○ 제가 만들면 드실래요?

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여기서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. ㄹ이 탈락하는 -(으)니까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
✕ 작년에 한국에 가면 김치를 먹었어요.

○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김치를 먹었어요.

-(으)면은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냅니다. 한 번 끝난 일에는 과거 표지와 함께 -(으)ㄹ 때를 써야 합니다.

✕ 내일 비가 왔으면 안 갈 거예요.

○ 내일 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.

미래의 조건은 기본형 그대로 씁니다. -았/었으면도 있지만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처럼 바람을 나타냅니다.